

##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21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17.

발 의 자 : 강준현 · 박정현 · 서영석  
이광희 · 윤준병 · 송재봉  
맹성규 · 정태호 · 민병덕  
김교홍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음.

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과거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제척·기피·회피 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고, 심급제도에 의한 상급심의 재판과 합의제도에 대한 다른 법관들의 관여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.

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3년 이내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(2021헌마460).

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

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제1항제 5호 삭제).

법률 제 호

##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
제43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. 1. ~ 4. (생    략) 5.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른 <u>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</u> <u>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</u> <u>과되지 아니한 사람</u> 6. · 7. (생    략) ② (생    략)	제43조(결격사유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    제&gt;</u>  6. · 7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